

나주시, 내달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시 과태료 부과

나주시는 관내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 또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

용시설 등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앞서 시는 법 시행 초기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혼란을 막고자 지난 5개월 간 충전방해 행위 금지 스티커 부착, 안내문 게재,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왔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관련 신고 접수 시 최대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구역 내 물건 적치 등 방해', '충전시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경과 이후 계속 주차', '충전 외 타 용도로 사용'의 경우 10만원,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해당 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기숙사, 공공건물·공중이용시

설·공영주차장 등과 기숙시설(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의 총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을 확충해야한다.

설치 비율도 기숙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신축시설은 5%로 확대됐으며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구축해야 한다. 충전기가 1기일 경우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야한다. /서성택 기자

화순군,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 재개

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운영이 중단됐던 화순적벽 버스투어가 운영을 재개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천하제일경 화순적벽의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있는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29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11월 27일까지 매주 수·토·일요일에 운영된다.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화순투어 누리집(<https://tour.hwasun.go.kr>)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화순군은 29일 운영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탑승 장소는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과 이서면(이서커뮤니티센터) 2곳이고, 하루에 각각 두 차례(오전·오후) 운행한다.

사전 예약 탑승 인원은 화순읍 출발 노선은 회당 60명, 이서면 출발 노선은 회당 30명이다.이용 요금은 화순읍 출발은 1인당 1만 원, 이서면 출발은 1인당 5천원이다. /남호경 기자

투어 희망일 2주 전 오전 9시부터 2일 전 오후 4시까지, 본인 포함 최대 8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사전 예약과 함께 현장 예약 버스도 운행한다. 이서면 이서커뮤니티센터에서 출발하는 현장 예약 버스는 선착순으로 30명까지 접수한다. 이 버스도 하루 두 번 운행하고 출발 시간은 예약제 운행 버스와 동일하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연간 약 3만 명이 이용했던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화순적벽 버스투어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관광기획팀(061-379-3506)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버스투어 운영을 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재개된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통해 화순적벽의 절경을 감상하며 힐링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호경 기자

영광, 해수욕장 협의회 개최

영광군은 오는 7월 8일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목포해양경찰서, 영광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군, 해수욕장 주변 마을 대표 등이 참석해 지역 대표 해양관광 기반인 해수욕장의 운영기간과 운영방법, 안전계획 등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특히 군은 올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시설 안전점검과 개·보수를 실시했으며 안전관리요원 채용 등 안전예방에 관해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들은 단 한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역할분담을 숙지했고 유기적인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영광군은 종합안내소를 운영하고 해수욕장 수질분석과 주기적인 청결활동을 전개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장오 부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 한건의 물놀이 사고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청정 해수욕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욕장 개장기간은 가마미 7월8일~8월15일이며, 송이도는 7월23일~8월15일이다. /김진기 기자



담양군은 광주MBC와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광주MBC는 다양한 계층이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활기찬 원도심을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광주MBC, 'LP음악충전소' 협약 체결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983㎡ 규모

담양군은 광주MBC와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최한 협약식은 최형식 담양군수,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 김낙곤 광주MBC 사장, 황한영 경영인프라본부장, 윤행식 콘텐츠본

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광주MBC는 다양한 계층이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활기찬 원도심을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광주MBC 담

양LP음악충전소가 국제음악도시 담양군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담양군은 지난 2021년 10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83㎡ 규모의 '광주MBC 담양LP음악충전소'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2년 8월 완공 및 9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종연 기자

장성,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책자 발간

행정복지센터·마을회관·유관기관 등에 비치

장성군이 재난 유형별 대응행동요령 및 안전수칙을 수록한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책자를 제작·배부했다.

군은 최근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군민의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물론, 평소 국민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대비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책자 700부를 제작했다.

책자에는 자연재난(태풍, 호우, 산사태 등) 10종, 사회재난(감염병예방, 화재, 산불 등) 18종, 생활안전(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27종 등 총 55종의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이 삽화 등을 활용해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도 함께 수록돼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몸에 익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내 전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등에 책자를 비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7월부터 '남도안전학당' 운영을 재개한다. '남도안전학당'은 안전강사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현장 교육프로그램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유광중 기자

